



# 한인회보

##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BEOM H. KOO, Publisher  
SUK BOK LEE, Editor

Seattle-Wash. State Korean Asso.  
16520 Linden Avenue North  
Seattle, Washington 98133  
(206) 546-6746

VOL 1 NO. 1

January 1974

### 아리랑의 밤성요

1973년도 아리랑의 밤이 지난 12월 29일 BELLEVUE에 있는 HOLIDAY INN에서 있었으며 한족 노래와 춤, "하와이"음악과 "타히티"엔드 아리랑악단과 그에 맞는 한족 유행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2일 참석한 회원들은 하루저녁을 즐겁게 보냈다고 한다. 아리랑의 밤 집행위원회의 재무를 맡아보감 행진시에 의하면 과실 입장료 1,364불 (연방 2명, 학생 181명, 도합 399명) 과 기부금(광고료) 110불, 기타 1불, 도합 1,475불의 수입에 총비용 \$1,240.31을 제하고 \$234.69의 순이익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1972년도의 230명에 \$600 정도 입장료 수입에 비하면 엄청난 발전은 보인다. (위엔 아리랑의 밤에 관한 여론조사 참조)

### 한인상공회의소 창설

지난 12월 15일 뉴코피아 식당에서와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Washington State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가 그 창립총회를 가졌는데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사업상의 상호협조에 목적을 둔 이회의 대표에는 김길량(인해업), 총무에는 최명철(식당업) 제씨가 선출되었으며 부회장 및 그외의 임원 선출은 다음 임시총회까지 미루기로 했다. 모임은 매달 한번씩 가지며 현재 회원수는 가입대상자까지 포함하여 약 20명 정도 된다고 한다.

### 한인 용접사회 결성

한인용접사회(PACIFIC NORTHWEST KOREAN WELDERS ASSOCIATION)가 지난 12월 22일 결성되었는데, 회장에 조성욱 씨(TODD), 부회장에 정 총무에 박제민 씨(LOCKHEED), 재무에 임병익 씨(BOEING)가 각각 선출되었으며, 임계감사에는 김학조(LOCKHEED), 박준환(TODD) 제씨가 임명되어 앞으로 연년동안 일을 맡아 보게 되었다. 회장 조성욱씨에 의하면, 본회는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함은 물론 어려운 회원에게 협조도 할 목적으로 창립되었으며, 용접사가 되기 위한 도움이 필요하신분은 임원중 어느분에게나 연락해 주면 바라고 있다. 현재 회원수는 24명.



1973년도 아리랑의 밤 광경

신년도 예산안 이사회에 제출 회칙 제26조 3항에 의거 임원회에 서 작성한 1974년도 한인회 총예산안이 지난 1월 15일 이사회에 제출되었는데 오는 1월 27일에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게되면 곧 집행하게 된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은 그 규모가 4천불선을 육박하는 것으로서 이사회의 심의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 한인회 공동회의

한인회의 이사회, 임원회 및 회관설치 위원회 세 기관이 같이 자리를 한 공동회의가 급변들어 처음으로 지난 1월 20일 오후 3시 KAWABE HOUSE에서 있었는데 이날 회의에서 결의된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다.

- 1) IRS — 한인회회를 명분으로 번역하여 비영리단체로서의 면세신청을 IRS에 제출하는 일
- 2) 회관설치위원회 — 인프레이션 등을 감안하여 현재 모금한 돈으로 건물을 매입하되 한인회사무소를 이 건물안에 설치한다.
- 3) 만일 건물을 단시일내에 매입 못할 때에는 회관이 마련될 때까지 사무실을 빌려서 쓰도록 한다.
- 4) 한인회보를 매월 정기적으로 발행함

### 이민국에 주소보고

미국시민이 아닌 한자사람이면 외국인으로 보고서를 매해 정월에 이민국에 보내야 하는데 "Alien Address Report Card"를 우체국 직원으로 부터 받아서 써서 1월 31일 이전에 잊지 말고 우편으로 부리기 바란다.

### 새 이사장에서 두수 박사

지난 12월 30일 오후 3시 와싱턴 대학의 톰슨홀에서 열린 1974년도 한인회 이사회가 이창희 전년도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정부이사장 선출에 있어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거를 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다

이사장	서두수
부이사장	전계상
서기	이현기

이분들의 임기는 1년이나 이사로서의 임기는 이창희 서두수 두분이 2년이고 전계상 이현기 구법회 이선복 이상네분은 1년으로 되어있다.

### 이창희씨,

Addressing Machine을 한인회에 기증

년전에 등사기를 한인회에 기증한바 있는 이창희씨는 이번에는 Addressing Machine 한셋트를 또 기증하였다. 이 기계를 이용하면 600여 회원에게 가는 회보에 주소를 불과 두시간이면 깨끗하게 적을수 있어서 한인회 임원들의 하는일이 쉬러지게 되었고 따라서 회원들에게 보내는 소식이 훨씬 신속하게 되었다고 한다. 한인회 임원은 물론 전회원이 이선생님에게 감사를 드려야 할 고마운 일.

### 교양강좌개최공고

## INCOME TAX

금년도 사업계획중의 하나로 되어있는 교양강좌와 시그즈 중 1첫번째로 "Income Tax"에 관한 강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회원의 참여를 바랍니다.

연차: 1974년 2월 9일 (토요일)  
 시간: 저녁 7시 30분 부터  
 강사: MARJORI DANIELS  
 L.K.H.H. C.P.A Firm  
 장소: U.W 학생회관 (HUB)

1974년 1월 25일

한인회장 구법회



**한인회관설치위원회에서 알려드리는 말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후원으로 모금운동은 활발히 진행되며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부를 하거나 곧 기부하기로 약속하신 분들의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기부하신분	금액	약속해 주신분	금액
Mrs. Choi (최정민씨 모친)	#100.00	안병영	300.00
Mrs. Hughes, (진숙)	300.00	조용	100.00
김덕환	100.00	전계상	500.00
이창희	1,000.00	전기수	50.00
이동립	1,000.00	황수철	100.00
문수만	100.00	김길량	금액 미정
Dr. Guesenbery, James	5.00	김홍식	1,000.00
신호범	1,180.75	김현중	100.00
연도성	1,000.00	김성길	50.00
합계	\$4,785.75	구범희	50.00
		이창희	1,000.00
		이현기	300.00
		이신복	100.00
		오준걸	100.00
		송충래	250.00
		서두수	200.00
		합계	\$4,200.00

한인회관설치위원회 위원장 김현중 올림

**회비납부요망**

한인회 재무부에서는 와싱턴주에 거주하는 교포들이 회비를 납부해 주기를 요망하고 있다. 회비는 부부 10불이며 (만 18세 이상인 독신자는 5불) 아래 양식에 주소 성명 및 금액을 명기하여 본회보에 첨부된 봉투에 넣어 우송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회비를 보낼 때는 수표나 "마니오더"를 이용하고 현금은 절대로 동봉하지 말도록 부탁드린다. 회비를 내신분에게는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때때로 발행될 회보에 그 명단을 발표함으로써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인회 재무 집행진 커하  
 TO: J. H. Kim, Treasurer  
 Seattle-Wash. State Korean Association

1974년도 회비 \$10.00 (독신자는 \$5.00) 과 한인회 운영을 위한 찬조금 \$ \_\_\_\_\_, 도합 \$ \_\_\_\_\_ 을 동봉하였습니다.

성명(한글) \_\_\_\_\_ (영문)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광고모집**

한인회에서는 매월발간하는 한인회보와 오는 봄에 발행될 주소록에 실을 광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광고비는 회보나 주소록이 같은 료율로서 도안은 원하는 분에 한하여 실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광고를 내시거나 하는분은 회보는 매월 10일 까지 그리고 주소록은 오는 2월말까지 아래양식에 표식과 서명을 하셔서 본회 인사사무소 (구범희 회장택)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es, I want to advertise my bussiness

Wash. Korean News     Directory  
 Payment enclosed     Bill me  
 \$75.00 Prime page  
 \$50.00 Full page  
 \$40.00 3/4 page  
 \$30.00 1/2 page  
 \$25.00 1/4 page  
 Design supplied     Design wanted

Contact Pro-Litho if special design need  
 119 Yale ave. N. Seattle 622-7371  
 Gil R. Kim

Bus. \_\_\_\_\_  
 Name \_\_\_\_\_  
 Address \_\_\_\_\_  
 Tel. \_\_\_\_\_ Date \_\_\_\_\_  
 Signature \_\_\_\_\_

**韓人會와 對外關係**

이현기

많은 한국인들이 와싱턴주에 살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각 전문분야에 있어 많은 공헌을 하며 한국전통적인 문화생활과 단체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실을 미국인에게 인식을 주게 된것은 최근에 와서 비로소 이루어진 일이다.

이나라의 국민된 한사람 또는 사회구성 의 일인으로서의 권리와 평등을 쟁취하기 위하여 집단적인 운동을 사회적으로 전개할수있는 한조직체인 단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바이다. 와싱턴주정부, 시정부, 또는 각 지방자치행정부를 통하여 마땅히 받을수 있는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교섭할수있는 단체가 있어야 한다고 긍정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한인회라고 지적하겠다.

1967년에 우리들의 힘으로 한인회가 탄생하여 회원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큰 발전을 거두고 있으며 수번전부터는 와싱턴주에 널리알려지게 되어 한인회대표가 각단체에 참가 활동하여 새로 이민오는 동포들의 편리와 복지를 도모하고자 물심양면으로 힘쓰고 있는 사실을 교포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한다. 한인회에서 대표를 파견하는 단체들은 아래와 같다.

1. 아세아인 직업소개소 (E.O.C. 또는 Employment Opportunity Center)
2. 시애틀 아세아인 협회 (Greater Seattle Asian-American Council)
3. 시애틀 국제협회 (Seattle Int'l Council)
4. 시애틀 아세아인 문화회관설치 한국인위원회
5. 아세아인모범사업회 (D.P.A.A.)
6. 이민자 자원위원회

다른나라 민족들은, 특히 일본과 중국, 서로 협력하고 단결하여 미연방정부 또는 시정부와 교섭하여 큰도움을 받고있는 현실을, 불쌍 부러운 감을 금할수 없다.

개인의 힘도 크지만 정부나 공공단체를 상대로 교섭할때는 한사람 한사람의 힘을 모아서 집단적인 힘이 되어야만 그 효과를 낼수 있으며 국민권에게 힘을 이룰수 있는 것이라고 느끼고있다. 쇠마리 하나하나로 만들어진 쇠사슬이 쇠마리 보다 힘이 더셀수는 없다 (No Chain is stronger than a link).

우리 한인회가 대외적으로 보다 더 큰 힘을 보일수 있다면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들의 오늘 사업이 후세의 기초가 된다면 우리 한국인 또는 한인회의 복리를 위하여 서무보수로 일하는데 방해되는 언행을 해서는 안될것이다.

미국인 사회에서 우리 한인사회를 무시할수없는 단계에 이미 도달했으며 한인 한사람 한사람이 더 협력한다면 한인회는 여러분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 대외적으로 더 큰 사업을 할수있을것이라고 생각한다.

**일곱째 해를 마치고**

김재상 올림

항상 신심원을 생활로 충취해가 되면 우리 한인회가 바람직한 충취같은 그런 느낌을 주곤 했으나, 그러나 나는 다대수의 교포 여러사람 마음속에 회가 어떻게 계속해 나가야 하는 인연의 돈으로 의도가 있었다고 느꼈다. 그리고보면 많은 교포들은 우리 한인회에 대해서 어느어차이 있고, 또 한인회를 통해서 무엇이든 할 기여 하기 때문이 아니 아닐까.

나는 외국에서 사는 한사람으로서 우리말도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또 같이 놀고 할수 있는 그런모양을 갖았음이 여기서 살아 나간다는 것은 생각할수 없다. 그것은 사람이란 그런것에 대해 어디이고 방황할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인회가 전혀 정복없이 지나온 우리 동포들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우리 동양사람들은 위도가 다른기 때문에 구라와 같은곳에서 온 사람들과는 형편이 좀 다르다고 나는 본다. 여기 일본인 혹은 미족들도 "인디언" 또는 흑인들을 보더라도 그런 동쪽거리야만 만족을 느낀수 있는 여러모양이 오래도록 계속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수가 있다.

우리 한인회는 첫째 이같은 이유때문에 생겼다. 과거 육면동안 한인회는 이런 첫 목표를 잘 수행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는 한인회는 제 이단계에 들어가고 생각한다. "시애틀-라코라" 근처의 한인교포들은 이제는 수천에 달하였다. 한인들의 생활도 특이 없어졌으며 경제상태도 많이 향상되었다. 이런단계에서의 우리 한인회 할야발전은 무엇이어야 할까.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교포의 이 나라 사회내에서의 복지와 지위의 향상일 것 같다. 지난 몇 이면동안도 다소 이같은 방향으로 노력한 바 있었지만은 공론은 여전히 열심히 이 방향을 추종해야 할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나라 각정부나 연방정부에는 우리 한인사회같은 소수인사회를 돕기 위한 예산이 적지 않다. 우리는 이것을 가능한대로 이용해야 할것이다. 여기 주변으로서 지위를 높여야 하면 첫째 내정리를 알아야 하고 그것을 단계적으로 요구해야 할것이다.

나는 이제는 그들과 회원의 집에 비추어봐 우리 한인회는 위의 제 이단계에서 효과 있게 할야해 나갈수있는데 도달했다고 보는바이다.

**1973 한인회를 회상하며**

김혁 올림

1973년 Seattle 한인회는 안으로나 밖으로나 크게 번성했다. 안으로는 한인회의 식구가 늘고, 다른 배경을 가진 수많은 형제들이 이곳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정착함에 따라 한인회도 종전의 가족적 단체성으로 법인성을 띄는 방향으로 본회회칙도 대폭 개정했다. 밖으로는 한인회가 비영리단체로서 그 활동이 이 사회에 알려지고 본회를 다른 많은 기구단체에 노출시켰고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새 회칙은 명백히 본회는 이곳에 같은 목적으로 정착한 권 한인의 보양임을 밝히고 계속 한인계 후손들에게 운영될것을 확인했다. 식구가 늘며 따라 운영이 복잡해지고 매년 교체되는 커윈들로 인해 본회의 계속성이 파손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한 신규 임원들의 원만한 교체를 기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존재성을 강조했다. 물론 어떤 회칙이라도 전 회원의 모든 idea를 다 대표할수 있는 것은 아니 우리의 새 회칙도 부족한 점이 있을것을 믿는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한번 절차를 따라 결정된 회칙이 있으면 비록 개인의 뜻에 맞지 않더라도 회칙을 따라 질서를 유지해야 할것이다. 새로운 idea가 있으면 계속 한인회의 모임에 참여해서 회칙에 따라 소개 의문해서 개정 및 발전시켜야 할것이다.

한인회의 대외적인 활동은 전전히 발전했고 다른 아세아인 회의 목적과 차별해서 우리의 궁극적 목적인 건 아세아인 후손의 복리 및 권리를 이사회에서 보장하고 확장할것에 권 힘을 다해 왔다.

끝으로 한인회는 이곳에 사는 우리 한인 대표하고, 우리 한인들의 모임이고, 우리 후손들로서 계속 운영될것이니, 한인회가 우리 각 개인 한인하게 무엇을 하는가 생각지 말고 우리들 각 개인이 우리 한인회에 무슨 일을 할수 있는가를 궁리해야 할것이다. 1974년에도 우리 한인회가 회칙에 따라 질서있는 발전이 있을것을 믿어마지 않는다.



U.W. 학생회에 100불 기부  
 한인회에서는 지난 12월 29일 U.W. 학생회에 100불 기부하였는데, 당시 회장 한만섭씨가 이를 아리랑파커 도중에 김철준 학생회 부회장에게 전달하였

"Did you HAVE to use Roman numerals?"

**한국일보 시애틀 지국에서 드리는 말씀**

'74년 새로운 한인회, 새로운 한인사회발전 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더불어 자라나는 한국일보 시애틀 지국은 여러분들의 사회생활에 걸잡이가 되고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일어나는 좋은 소식이나 또는 알고져 하시는 궁금증에 응답코져 여러분들의 연락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일보 구독신청이나 연락할곳은 하기 주소나 전화로 이용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일보사 · KOREA TIMES  
 Seattle Bureau  
 1107 N.E. 45th St. #401  
 Seattle, Wa. 98105  
 Tel. (206) 634-3350/3351  
 야간 (206) 367-0999

**구독신청서**

PHONE: (206) 634-3350 (206) 634-3351

고국소식 과 교포소식은 한국일보 SEATTLE 지사로  
 1개월-4.50 1년-45.00 선불

NAME \_\_\_\_\_  
 ADDRESS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PHONE \_\_\_\_\_

아리랑의 밤에 관한 여론조사

1974년도 아리랑의 밤은 더욱 훌륭한 파티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모으고 있어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기입하여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은 본지에 첨부된 봉투에 넣어보내셔도 좋고 별봉에 본회사무소로 부치셔도 됩니다.

가) 파티시기 — 해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사이에 있는 토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으로 정해 왔었는데;

- 1) 그대로 하는것이 좋다; \_\_\_\_\_
- 2) 다른 때로 옮겼으면 좋겠다; \_\_\_\_\_  
 만일 옮긴다면 어느때가 더 좋겠습니까?  
 1) Thanksgiving 다음 토요일; \_\_\_\_\_  
 2) 다른 때; \_\_\_\_\_

나) 파티성격 — 한국적인 프로그램을 꼭 넣어 왔었는데;

- 1) 작년처럼 프로그램이 많은것이 좋다; \_\_\_\_\_
- 2) 다 빼고 순수한 Cocktail Dance Party로 했으면 좋겠다; \_\_\_\_\_

다) 음식과 입장료 — 입장수를 미리 알수가 없어서 음식 준비에 곤란을 받아 왔었는데;

- 1) 음식을 덜애고 파자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_\_\_\_\_
  - 2) 입장료를 올리더라도 표를 예매하고 인원수를 파악하여 Dinner를 겸한 Dance Party를 하는것이 더 좋겠다; \_\_\_\_\_
- 라) 한국인 밴드와 노래로 봄에 파티를 한번더 했으면 좋겠다; \_\_\_\_\_

SEATTLE - WASHINGTON STATE KOREAN ASSO.

16520 Linden Avenue North  
 Seattle, Washington 98133



Dr. & Mrs. Mansop Hahn  
 4232 N.E. 17th St.  
 Renton, Wash. 98055